

광주, 세계 속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사 새로 쓴다

■ 2015 광주 하계 U대회 개최

부산·대구·인천이어 '빅스포츠' 개최 명맥 이어 국제도시와 경쟁 발판... 광주 진면목 알릴 기회

광주시는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로 국내 스포츠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됐다. 특히 광주시는 국제대회를 개최한 부산, 대구 등 지자체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다.

23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2015 U대회 개최를 확정된 광주시는 '1997 무주 동계 U대회', '2003 대구 하계 U대회',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1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등 '빅스포츠' 개최 명맥을 잇게 됐다.

광주시에서 2002년 월드컵 축구, 2005년 피스컵 국제 축구대회, 2007년 국제태권도 친선 경기대회 등 단일 종목의 크고 작은 국제대회가 열린 적은 있지만,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종합스포츠 대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광주의 쾌거는 한국 스포츠사에서도 남다

른 의미를 갖는다.

인천이 2014년 하계 아시안 게임을 개최한 데 이어 곧바로 2015년 광주시가 하계 U대회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국제 스포츠 대회의 열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의 안방 개최는 정부는 물론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면서 광주는 물론, 한국 체육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체육계는 광주시의 U대회 개최를 계기로 지난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발판으로 비약적인 도약을 했던 한국 체육이 '제2의 황금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빅 스포츠 대회 개최로 인한 스포츠 외교인력의 육성과 국제기구 진출이 세계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자름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별기에 브뤼셀 = 윤영기기자 penfoot@



23일 벨기에 브뤼셀 동체 라 옴포 호텔에서 열린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총회에서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도시로 광주시가 선정, 발표된 가운데 박광태 광주시장·정의화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장·광주시의원·시민단체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광주전남신문기자단>

“시민 한마음, 광주 위상 드높여야”

■ 체육계 반응

광주시가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도시로 최종 확정되자 광주지역 체육계 인사들은 '환영'의 뜻을 전하며, 광주 시민 모두가 한마음되어 '최고의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들은 이 대회가 광주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종합경기대회인 만큼 세계 속에 국제도시 광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광주체육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식 교수> <전학철 사무처장> <정일훈 교장>

기존 체육시설 국제규격 맞게 보완

▲김응식 조선대 교수=U대회 광주 유치가 힘들게 성사된 만큼 앞으로 완벽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경기장은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국제규격에 맞게 보완하는 게 경제적이며 세계연맹측에서도 바라는 사항이다.

두번째는 심판 등 경기운영 요원을 지금부터 양성·교육시켜야 한다. 특히 광주에서 개최하는 만큼 지역 연맹별로 운영 요원을 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세번째는 열주동에 집중돼있는 체육시설간 동선 재조정이 있어야 한다. 현재의 경기장간 이동노선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네번째는 선수를 보호와 치안 유지에 신경써야 하고, 마지막으로 광주지역에 있는 대학별로 응원단을 꾸려, 타국 선수단 응원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광주대회의 특색을 살리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의식 높일 것

▲전학철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국제 대학 스포츠 행사인 하계U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세계 속에 광주시를 알리고 광주체육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아울러 광주지역 선수들도 대회 개최를 통해 업그레이드 된 기량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시민들이 타국 선수들도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성숙한 응원문화를 보여 줄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캠페인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

광주 학생체육 실력 발휘 좋은 기회

▲정일훈 광주체육교 교장=1등 광주 학생 체육의 실력을 광주에서 뽐낼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 현재 광주체육교에서 기량을 연마중인 학생들의 실력은 매우 뛰어나다.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는 2015년 이번 일취월장할 것이다. 특히 레슬링, 유도, 배드민턴, 복싱 등의 학생들은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수많은 메달을 안겨줄 것으로 확신한다. /서승원기자 swseo@

세계 170여개국 대학생들의 '스포츠 제전'

■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주최하여 2년에 한 번씩 출수 연도에 열리는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제전. 대학스포츠의 발전, 학생의 체육 및 후생, 모든 나라 학생들의 좀더 밀접한 접촉 및 국제적인 대학스포츠 통일을 위한 협력 등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 가입한 170여개국에서 1만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이 참여해 11일간 육상, 축구 등 13개 종목에 걸쳐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17~28세의 아마추어 대학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는 우정과 화합의 장이자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로 '청년 올림픽'으로도 불린다.

1923년 파리에서 처음으로 국제학생경기대회가 열렸으며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중단되었다.

1947년 파리에서 28개국이 참가하여 국제학생경기대회가 열림으로써 부활. 그후 서방측의 FISU와 동구권의 UIE(Union Internationale des Etudiants)로 분열되어 별도로 경기대회를 가졌다. 1957년 서방측 국제학생스포츠주간이 파리에서 열렸을 때 FISU와 UIE가 접촉하여 단일화되었는데, 이것이 유니버시아드의 시초가 되었다.

'유니버시아드'라는 명칭이 쓰여진 것은 1959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제1회 대회 때부터이다.

대회는 하계 10일간, 동계 7일간 치러진다. 하계는 육상·수영(다이빙도 포함)·농구·펜싱·체조·테니스·배구·수구·축구·유도, 동계는 스키·피겨스케이팅·아이스하키·쇼트트랙이 정식종목이다. 이밖에 개최국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기 1종목을 포함시킬 것을 제외할 수 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용병 구름스 든 당당한 6승투



KIA, 히어로즈전 2연패 뒤 8대1 승

'특급 용병' 구름스 이 위기의 팀을 구했다. KIA 타이거즈가 24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히어로즈와의 시즌 4차전에서 7이닝을 1실점으로 막은 구름스의 호투를 앞세워 8-1로 승리했다.

앞선 두 경기에서 선발 투수의 부재 속에 2연패를 기록했던 KIA는 구름스를 내세운 마운드가 안정되면서 모처럼 여유있는 경기를 펼쳤다.

3회말 나지완의 솔로포로 공격의 표문을 연 KIA는 자신의 1군 복귀를 알리는 김종국의 백투백 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두 개

의 홈런이 연달아 터진 뒤 김선빈은 우전 안타를 터트렸고, 최희섭의 희생플라이 때 홈을 밟아 3-0을 만들었다.

홈런으로 시즌 첫 타점을 기록했던 김종국이 4회에는 바로 1점을 만들었다.

4회말 볼넷으로 출루한 김종국이 2개의 도루로 3루까지 진출한 뒤 김원섭의 2루타 때 홈인하면서 팀의 4번째 득점을 기록했다.

7회에는 승리를 확정짓는 타선의 대공세가 펼쳐졌다.

1사 1루에서 이종범의 땅볼을 처리하던 2루수 강민우가 공을 놓치면서 주자·타자 모두 세이프가 됐다. 홍세완의 중전안타로 1점을 도망간 KIA는 김상현의 2루타와 김상훈

의 적시타를 묶어 8-1을 만들었다. 선발 구름스는 5회초 강정호에게 솔로홈런을 맞으며 1점을 내주긴 했지만, 이 점이 이날 등판에서 유일한 실점이었다.

구름스는 7이닝동안 5피안타 2사구 6탈삼진으로 깔끔하게 히어로즈 타선을 막으며 시즌 6번째 승리를 챙겼다.

1군 마운드로 승진보가 올린 반면 2군 마운드에서는 한기주의 부진 소식이 들려왔다.

벽제구장에서 열린 경찰청과의 2군 경기에서 출전한 한기주는 이닝 동안 2개의 탈삼진을 뽑아내기는 했지만, 홈런 2개를 얻어맞는 등 4개의 피안타로 3실점하며 부진했다.

이날 지구 최고 구속은 144km, 슬라이더는 134km에 그치면서 한기주의 1군 진입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태환 자유형 200m 우승

광주일고 4강 무산

청룡기 전국고교야구

올 첫 출전 공식대회

한국 수영의 희망 박태환(20·단국대)이 올해 처음 출전한 공식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08 베이징올림픽 자유형 400m 금메달리스트인 박태환은 2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윌리엄 울렛 주니어 아쿠아틱스센터에서 열린 자넷 에반스 인비테이셔널수영대회 이틀째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7초43의 기록으로 8명 선수 중 가장 먼저 레이스를 마쳤다.

베이징올림픽에서 1,500m 금메달을 딴 우사마 멜블리(튀니지)가 1분47초58로 뒤를 이었다. 박태환은 멜블리와 치열한 선두 싸움을 하면서도 25초93에 50m 턴을 한 뒤로 줄곧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박태환은 앞서 치른 예선에서 1분50초42의 기록으로 104명의 참가 선수 중 1위로 결승에 올라 우승을 예감했다. 박태환의 자유형 200m 최고 기록은 베이징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 때 세운 1분44초85다.

박태환은 주 종목인 남자 자유형 400m에서는 멜블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결승에



서 3분52초54를 기록해 3분47초15의 멜블리에게 5초가량 뒤졌다.

예선에서 3분50초27로 터치패드를 찍어 멜블리(3분51초38)를 제치고 전체 1위로 8명이 겨루는 결승에 올랐던 박태환은 하루에 200m와 400m 예선 및 결승을 모두 치르면서 400m 결승에서는 제 힘을 내지 못했다.

박태환은 대회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남자 1,500m 결승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광주일고의 청룡기 4강 진출이 무산됐다. 광주일고는 24일 목동 야구장에 열린 제64회 청룡기전국고교야구대회 8강에서 타선의 침묵으로 천안 북일고에 1-6으로 저 준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1회초 2개의 2루타로 1점을 내준 광주일고는 9개의 삼진을 뽑는 등 안투를 기록한 북일고의 선발 김용우의 호투에 막혀 힘든 경기를 펼쳤다.

5회말 백세웅의 선두타자 안타가 나오면서 모처럼 광주일고의 반격 기회가 왔다.

희생번트가 성공하면서 1사 2루. 땅볼이 나오면서 투 아웃이 됐지만 강민국의 타구를 2루수가 놓치 사이 3루에 있던 백세웅이 홈을 밟으면서 1-1이 됐다.

하지만 이어진 6회초 북일고의 홈런포가 가동됐다. 1사에서 김동엽의 솔로포가 나온 뒤, 2사 2루에서 홍성갑의 3루타와 박건주의 중전안타가 연달아 나오면서 점수는 1-4가 됐다.

광주일고는 9회에도 북일고 남찬희에게 2타점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1-6으로 패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